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었던 일도 많았었는데 이야기하시느라 애쓰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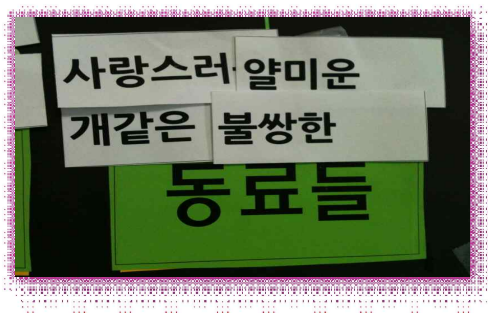
얼마 전 뉴스 혹시 보셨나요. 어느 대학 교수가 명품을 걸친 여성은 그것이 진짜라면 모두 성매매 여성이며 그래서 찌려보기를 권한다는 칼럼을 썼어요. 또 얼마 전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구매자에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죠. 성매매 관련한 뉴스가 많은데 이런 거 볼 때 어떠세요?

-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는 진실이 없잖아. 틀려요. 죽었다는 얘기만 사실인거야. OO에서 살인사건 있었을 때도 틀렸잖아요. 신문에 나온 얘기랑.

맞아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의 진짜 얘기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를 준비했습니다!

썸2. 사다리 뉴스 - 동료

번호 고르기, 쪽쪽 내려가다보니 '동료'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혹은 떠오르는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 놓인 꾸며주는 말 가운데에서 그 동료를 표현하는 카드를 붙여주세요. (이후 계속되는 번호 고르기와 사다리 타기가 있습니다.)



-제가 ▲▲를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동창 친구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친하지만 하는 짓이 너무 알미운 거야. 어린 애지만 이 친구는 그 세계에 너무 빨리 빠져서 다른데서 아가씨를 꼬셔다 지가 소개비를 받고 그런 악독한 제 친구지만 저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에 그 친구 땀에 이 생활 하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헤어날 수 못하고, 그 친구는. 제가 많이 옆에서 붙잡아 주고. 지금은 나이 먹어서 지도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됐구나. 동생들도 때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들도 때리고 그랬던 애예요, 그 가게에서. 터줏대감처럼. 제 친구지만 그랬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죠. (연락해요?) 그럼요. 중학교 동창이고. (친구라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개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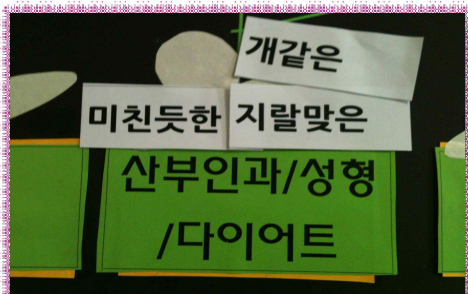
만 개가 몰라서 그랬던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인지 뭔지.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일동 크게 웃음) 그 친구가 원래 본심은 착한 애야. 가정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듣고 보고 한. 그래서 알게 되면 개선하는 게 있으니까. 몰라서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살고. 나이 먹고 나서.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언니한테 잘해주는 거 있어요?) 그래요. 반찬도 가끔 갖다 주고.. 어찌다 한번..

- 저는 개 같은 하고요. 불쌍한. 따로따로 인 것 같은데 같아요. 개가 얼마나 개 같았냐면, 얼마나 가시나가 좀 그렇냐면, 업소생활을 같이 여자들끼리 하다 보면 아부성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업주한테 가서 우리를 약간 이간질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개가 나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업주가 사실을 알게되면 니 아닐리 없다 니가 했으니까 언니가 알고 있지. 그런거. 그러면서 개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거로 인해서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는 굉장히 싫었어요. 따를 시켰어요. 같이 안 다니고. 우리는 항상 사우나를 가야되니까 사우나 간다하면 개는 빼버리고 가고. 무슨 말을 못하니까. 새로운 애들한테 자 앞에서는 말조심해라, 말하지 마라. 모든게 주인한테 들어간다. 이러다가 한 날은 술을 먹고 한 언니가 애한테 화풀이를 한거예요. 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 우리끼리 한 애인데 그렇게 입이 싸가지고 주인언니한테 말해갖고 니가 얻는게 뭐냐! 이런식으로 막 했는데 개가 말 한마디를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한마디 하는게 이해를 묻한다 이거라, 내가 말을 해봤자. 다들 맞다고 내한테 덤비는 건데 내가 아니라고 해봤자 믿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거들이 싫고, 내가 말을 안하는 거다. 그러면서 개가 더 울더라고요. 그래놓고 내가 가게를 그만두기 며칠 전에 우리는 항상 술로 시작하면 술로 풀어요(^^) 술을 한잔 하면서 개가 살아왔던 가정과 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자기가 잘못이란걸 알지만 자기의 관습적인 습관적인 행동, 지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 우리는 그때는 너무 몰랐던 그런 모습 때문에 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나중에는 너

무 불쌍한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게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야는 부러워해요. 지는 가게를 못 그만두는 스타일이고 나는 박차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용기 있다고 억수로 그러면서, 나를 좀 용기 있는 애? 그런식으로 취급하더라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개는 항상 그래, 내보다 더 많은 빛을 지고 있었고 그 터울을 떠날 수 없고. 지가 오로지 살아야 될 길은 주인한테 빌붙어서 다른 애들보다 이쁨이라도 더 받으면 한 테이블이라도 더 뛰게 되고 돈이라도 벌수 있다보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게 있다보니까 우리는 그때는 때려죽이고 싶다, 가시나 저, 이렇게 욕은 했지만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런 개를 생각하게 되니까 개같지만, 불쌍한.

- 그 사람은 그 방법밖에 모르는갑다.
- 지가 살아가는 길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는 틀에 박혀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썸3. 사다리 뉴스 - 산부인과, 성형, 다이어트



- 지랄 맞은. 미친 듯한. 저는 성형이요 너 무, 일할 때 보면 예쁜 언니들 많고 업주도 그런 걸 원하고 보도 실장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자꾸 돈 갖다 써라,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성형한 언니들 중독 되잖아요. 더 예쁘게 성형도 유행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좀 하고 싶기도(^^). 다이어트는 약 먹고 한창 했거든요. 한숨도, 한 시간도 못 자요. 그렇게 일하고.

(나도. 강요당했어요. 병원 막 보내고. 지금 요요현상으로 이렇게 찼어요. 꼭 얘기하잖아요. 25키로요.) 꼭 굳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다이어트 심하게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강요받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되나. 누굴 보여주길 위한 나를 (우리는 상품이니까) (하고싶은데 없어요?) 많아!!!(일동 웃음)

여자들한테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성형을 많이 권장하는 사회인거 같아요.

- 그거는 남자의 기준에 맞춰서 여자를. 난 너무 싫은 거야. 가끔 손님들이 '야 너 가슴 커서 좋겠다?' '누구 좋으라고?' 난 안 좋아. 무거워. 허리도 안 좋고(일동 웃음)

- 가슴은 마치 이름과도 같아서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아. 나는 뭐 생리 압박하면 가슴 커지고 너무 싫어요.

- 가끔 손님들이 '난 성형한 애들 너무 싫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개네들이 왜 하겠어 오빠네들이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잘 보일라고. 돈 벌라고. 오빠들 기준에 맞춰서.

- 여자들도 그렇잖아. 우리 마음도, 만약에 코를 하나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 거야. 그럼 불이 붙는 거죠. 요기도 하면 좋겠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주들은 돈을 쓰게끔 강요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크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슴 애기만 하면 노이로제였어요. 이야기하면 죽어버리고 싶고. 근데 업소 일할 때는 항~상 가슴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룸에서 옷을 입고 들어가면 마담이 손님보고 '자 옷 저래입고 있으니까 똥똥해비제?' '아니 뭐 팔다리는 보니까 아가 살찌게 보이는 타입은 아닌데?' '자 가슴 끝내준다? 뺏겨봐라?' 그날 저녁에 결국은 룸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 일을 자행을 많이 시켰어요. 지퍼를 내리는 바람에 벗겨지죠 옷이. 근데 그 손님은 내가 승질을 부려도 괜찮고 내가 지를 두들겨 패도 괜찮아요. 오로지 가슴 하나로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베고 잤음 좋겠다' 미쳤나 나는 무겁다. (일동 웃음) '그 품에 안겨서 자고 싶어' 숨 못셔~ (난 띠어가라 그래요) 나도 그래요. 갖고 가! 이러면서. 제가 D컵이에요. 힘들어요. (이 와중에 누군가는 부럽기도..)

- 저는 산부인과 진짜 지랄맞은거 같아요. 제가 일하다 중간에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를 가면 되게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전에 사후피임약 받으러 가면은 이거 계속 받으시면 내성생기고.. 그러니까 피임약을 드셔야죠 이런, 되게 깔아보는 듯한, 의사 환자 관계가 그런 게 있긴 한데 산부인과는 유독 심한 거 같아요. 종절수술 이런거 상담하러가니까 도덕적으로 되게 하등

한 존재 보듯이, 물론 겉으론 안 그러는데, 마음속 깊은곳에 그런 느낌이 있다는게, 거기다 내놓고 눈부터 좀 제대로 뜨라고 아니 지금 어떤 환자가 무슨 상황이 있어서 이 지경이 됐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 미친 지랄 같은 개같은 (쌍지랄이네 쌍지랄) 니는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맞아. 같은 여성인데) 저에게 직접 해당사항은 없는거 아니 모르겠는데 어떤 모 산부인과에 리즈 산부인과요. 리즈에 찌라시 이렇게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펼쳐봐요. 소음순 성형 이런 거, 1단계-5단계 등급을 매겨갖고, 5단계로 갈수록 늘어진다.

- 저는 ●●에 있을 때, 애들이 성병에 많이 걸려요. 그때는 콘돔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성병도 성병이지만 골반염증- 제일 여자들한테 치명적인 골반염증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안 되니까 비뇨기과를 가요. 산부인과에서 안되는 거 비뇨기과까지 가거든요. 그런 쪽을 세계 보기 때문에. 애가 한 날은 갔다오더니 얼굴이 누래져갖고 경상도 가시나가 마담언니한테 이런거예요. '언니야언니야, 내보고 있제 링박고 해바라기한^{남성성기보형물}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 하드라. 염증이 더 난다고.' 근데 언니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미친년들 지랄하네 그거 갖고 쳐벌어먹는 년들이 어디서 지랄이고! 어떤 병원이야!!' 저거들이 그거 다 해주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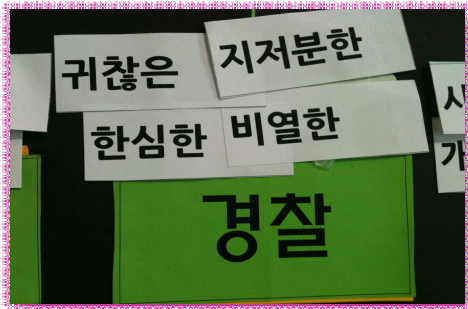
- 더 근데 정말 지랄맞은건 그게 되게 그런거, 주변에 의사 분들도 있어서 얘기 듣다보면 되게, 권력관계를 제대로 형성해야지 치료를 잘 따라온다는 그런게 있나봐요.

- 저도 애기 중절수술 할 때 한번은 모자보건소 같은 여성전문,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조해주는 곳에서 한번 했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데 솔직히 모자보건센터면 국가를 끼고 있고 적어도 여성부나 이런데서 관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해도 다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때 뭐먹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가 환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의사가 다 그래요. 개네들은 은행원들이 돈

을 돈으로 안 보듯이 (사람으로 안 봐) 그렇죠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썩4. 사다리 뉴스 - 경찰



- 우리는, 업소에 경찰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하나하나 아가씨 대기실에 와갖고 주민등록번호 해갖고 조회를 하잖아요. 저거들 기소중지자들 색출해가고 뭐 이런. 하면 뭐해? 저녁에 술먹으러 오는데?

- 저는 아무래도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거니까. 근데 되게 공포심은 되게 많았죠. 여차하면, 만약에 상황이 수틀려서 모텔 안에 가서 구매자가 모텔비용 대고. 제가 그때 15만원? 정도가 시세였는데 시간은 잘, 대충 두세 시간에. 근데 되게 수틀리면 아무데도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날 폭행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거잖아요. 되게 계속 그게 공포심으로 있었고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트위터에 기록을 했어요. 한 달 동안보고 겪었던 걸? 근데 이제 어떤 익명 사이트 같은게 있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가는. 거기서 제 트위터를 보고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야 이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자고. 신고했다 신고했다 이런 리플 죽 달리고. 너네들이라고 몸 안 팔고 사는 거 같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아무 일 없는. 인터넷 성매매, 막 이런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라 그러거든요? 되게 단속하는 것도 되게... 왜 하는거지?

경찰에 걸린 적 있어요?

- 많지요.. 아무 많지요.. 과를 다 다녔어. 형사과, 폭력계, 청소년 뭐 다. 아, 강력반도 가봤어. (강력반은 왜?) 주인을 긴급체포로 잡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일로 들어와봐’ 옷장을 막 여니까 전에 일했던 애들 옷이 있을꺼 아니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안에서 민증이 나왔어. 미성년자 민증이었던 거야. ‘이거 너 맞지!’ 내꺼 여기 있는데. ‘너 민짜지!’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줘서. 끌고 간거야. OO가 아니고 ●●쪽으로 간거야. 그 쪽으로 신고가 들어온거야. 미성년자가 거기다 분거죠. 주인이 OO 어디어디 가게에 있었는데

돈을 못 받고, 긴급체포로 들어가 미성년자니까. 또 끌려갔네. ‘너 약했지 뽕했지’ 같이 일했던 언니가 암환자 말기들이 맞는 주사 중독이었어. 환각제도 같이 먹었어요 그 언니가. 그 언니 스스로 그 주사를 맞아 하루에 막, 자기가 약을 주사이모한테 받아갖고 자기가 놓는거야. 그러면 그 약효과가 더 있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일을 해도 안 힘든거죠. 그게 뽕주사기라고 착각을 형사가, 언니 막 때리드라? 방에서? 마약쟁이라고 취급하면, 일단 잡을 때 몽둥이 들고 잡잖아요. 형사들이. (환각상태일꺼라고)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일단 때려갖고 제압을 해. 근데 ‘너도 했지?’ ‘저는 안했어요. 언니 그런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암튼 끌려갔어. 그래서 조사받고. 저는 ‘저 언니 몰라요..’ 항상 우리 알잖아요 교육받는거 ‘어제부터 일했구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지나가다가...’ 난 그래갖고 OO에서 상습범이라고. 맨날 어제와. 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야 어떤 새끼가. 상습범이네. 황당해갖고 왜 때리는데요? 아니 아저씨 지금 우리 포주잡으러 온 거 아니냐고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반장이 애 보통 아니구나 음료수랑.. 담배주고.. (세게 나가야) 따졌거든요. 왜 때리냐 당신. 내가 뭐 잘못했어? 상습범? 나 그때 걸릴 때마다 그만뒀는데 (일동 웃음) 증거 있냐. 뭔데 때려.

며칠 뒤에 돈 받으러 오는데 너 왜 이렇게 거짓말 했네. 형사님도 알잖아요. 다 알면서 만날 지나가면서 보면서 뭘 새삼스럽게 모르는 척 하냐고. 업소에 와가지고 ‘너 왜 구라쳐’ 장난칠라고. 그러고 나중에 놀러오고. OO 그런거 많아요. 진짜 아우. 그 소리도 여기까지 나와, 니네 씹 ㄱㄴㄹㄴ ㅅㅅ놈의 ㄹㅁㅁ; ㅈㅈ 돈 받으러 오잖아!! 이러고 싶고 막. 그 말까지 하면은 크게 벌어들일까봐 ‘포주 아시잖아요, 우리 포주’

- △△ 있을 때는 개가 약하는 거 때문에 한번 잘못돼갖고 경찰이 왔었어요. 형사들이 짹 깔려서 왔었어요. 가들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데 갈 때도 아들 쫓 많이 델꼬 다니지 왜 그런데 올 때마다 애들을 그렇게 짹 풀어가 접근 못하게끔 거기를 딱 막아가꼬 시작하는. 그래 내가, 아니 우리 한명 잡아가는 거 갖고 뭐 저래 기동대 차까지 다 서있고. 나중에 전경버스 짹 와갖고 아들 짹 서있고. 아 왜 그래야 되는데. 괜히 우리를 더 있잖아요 위촉되게 만드는데 더 기분나쁘게 만드는데. 또 와서 말이라고 공손하게 하나, 절대 말 높임말 안

하고 반말 바로 하고 자기는 신분증 제시 안 하면서 우리보고 신분증 제시해라 그러고. 나는 끝까지 안 줬어요 있는데 안 줬어. 왜 안주노 이라더라고. 내가 아저씨를 누군줄 알고 내 신분증을 주냐고. 이 말하니까 아저씨가 딱 쳐다보더라고. '니 학교 어디까지 나왔노' 그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그라니깐은 "됐다!"이라대(일동 웃음). 귀찮은 거라 자꾸 대든다고. 시간 없다 빨리해라 이라면서 잡아갖고, 한 애가 약을 했는데 야가 인제 여기저기 지역 막 다니면서 여까지, 최종 목적지가 △△였는데 이제 경찰 선에서는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렇게 된거야. 업주는 방방방 뜨고 와가지고 '아 약하는 아들만 잡아가면 되지 미성년자 없다니까 우리는!' 이라면서 언니가 막 난리가. 그러면서 한 언니 얼굴을 톡 보여주면서 '이 얼굴을 어떻게 미성년자라고 불끼고!'(웃음) 업주가 난리가 난거야. 장사 못하니까. 빨리빨리 가라고. 와 우리집이 타겟이고 캄서. 내가 조만간에 나간단니까 이래감서 이래 보내잖아요 원래. 그러면서 항상 가고 나면 또다시 재교육을 시키잖아 우리한테. '야 민증 달라 그러고 하면 안 돼. 이모한테 있어요 이모가 갖고 있어요' 너거는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있으면 빨리빨리 보이주고 마 빨리 보내라 경찰을. 집이 어디고 물어보면은 대충 알아 대고, 뭘 그래 가시냐야 딱박딱박 대드노 함서 내보고(웃음). 그런 거를 업주들이 억수로 경계를 하면서 '업주 이름 몰라요' '몇시까지 일하노' 보통 시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요. 룸 있을때는 정말 가관이었다니까요. 2004년 성매매특별법 딱 터지고 나니까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술값은 저거들이 내고, 아니면 사장이 술값 대주고 2차값은 저거가(접대하는)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해먹는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그라고 우리는 선불금에 대한 그게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잡혀도, 잡히면 야를 업주한테 데려다 주는 게 형사 하는 짓 인거야. 그라니까 우리는 더더욱 신임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성매매로 인해서 이 여성이 잡히면, 남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죄를 물어서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거를 빼달라 하는 건데, 지금 법으로 싸우는게 남자만 처벌하고 우리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그거를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회의 약자라고 보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건데, 항상 우리는 더 강해. 남자 이 사람들 그거 했던거 보다, 앞에서 모욕주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예요 경찰들은. 초소 같은데 가봐도 그런데 경찰서로 넘어갔을때는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고, 똑같

이 대할수 있는데도 강한 말투로 인해서 자기들 그런 어투로 인해서 우리를 더 제압을 시키고. 인간적 취급을 안 하죠. 우리는 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온 것뿐인데도 (그러니까)

- 근데 대부분 경찰들이, 그거 알아요? 그만두면은 다 이런 유흥업소 차려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개네들이.

- 경찰이 막 자기 유흥업소 차린다고 조언 달라고 네이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 난 주변에서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런 거를. 뉴스에도 나오잖아. 이런 거 전직 경찰이 게임장 차려갖고 막 이런것도 많고 유흥업소 차린것도 많고.

- 자기들이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선은 다 있으니까. 알사람 다 알고, 끈 다 있으니까.

- 저는 약간 별건데, 전 남편이랑 싸웠을 때, 때렸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경찰이 와서 저랑 애아빠랑 서로 갔어요. 갔는데 나를 보호해 달라 나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고, 나 OO에 집 있는데 거기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절박했고 막. 근데 경찰아저씨가 잠깐 앉아보라고, 커피한잔 줘요. 설득을 하는 거야 나를. 이혼 할꺼냐고. 이혼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할꺼라고. 이혼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 뭐 이런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뭘야, 오지랴도 넓다. 오지랴이 공설운동장이다)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날 보호해주는 일 아니냐 내가 신고를 한거 아니냐. 맞긴 한데 딱히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들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아 귀찮아하는) (맞네맞네) (직권 남용이야)

- 남자랑 대판 싸우고 있는데 모른척하고 가요. 뺑차가.